



[연합회 동정]

[고문 초청간담회 개최]

연합회(회장 이상호)는 지난 7월 6일(목) 서울 팔레스호텔 12층 라일락홀에서 고문 초청간담회를 개최했다.

연합회 고문 및 임원, 지역협의회장 2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이상호 회장은 "연합회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에 참여해 준 고문을 비롯한 임원과 지역협의회장에게 감사한다."고 말하고 "고문들의 고견 및 좋은 의견이 연합회의 발전을 앞당기는 만큼 충분한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인사말을 가름했다.

이어 연합회의 창립 초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연합회 연혁 및 주요 사업 경과보고, 중·장기 중점

사업계획 및 추진사항 등의 설명이 있었다

노용희 고문, 노재식 고문, 박노경 고문, 이승무 고문, 박창근 고문, 김동민 고문, 이용근 고문, 윤명조 고문, 김동운 고문들은 연합회 임원 및 지역협의회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연합회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세부 내용은 아래 참조)

마지막으로 만찬을 다 같이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대화를 주고 받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고문 초청간담회 내용 요약]

▶ **노용희 고문** : 각 회사에서 속해 있는 환경기술인들의 CEO와의 대화를 통한 환경기술인들이 회사안에서 위상을 강화할 수 있게 길을 모색해 주자. CEO의 생각이 환경기술인들의 행동에 기준이 되므로 연합회에서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노재식 고문** : 창립 이래 어려움 속에서도 연합회가 크게 발전이 돼서 기쁘다. 국내에 미치지 말고 환경기술인들을 해외로 연수파견 시켜서 미션을 주고 그 미션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게 해 다녀온 후에 결과 보고로 끝내지 말고 전문인을 초청 세미나를 개최해 유사업종에게 기술을 유료로 보급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승무 고문** : 연합회의 설립 목적중에 환경기술인들의 권익향상을 기술향상으로 교체해야 된다.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을 연합회에서 가져오긴 힘이 든다고 본다. 환경관련 전문교육 기관이나 센터를 설립할 수 있지 않는가?

▶ **박창근 고문** : 환경인회관 건립을 추진해야한다. 앞으로 많은 회원건립금액의 모금이 힘이 든다고 본다. 일단은 2층 건물을 사서 1층은 환경관련 상설 전시장을, 2층은 연합회 사무실로 쓰는 것은 어떤가? 빠른 시일안에 매듭을 지어 보자.

▶ **박노경 고문** : 월간 '환경기술인'지의 권두언을 여러사람이 기고해 다양한

글들이 게재 돼서 좋았다. 웰빙 등의 생활에 유익한 글이 게재돼서 회원들에게 정보를 줘서 좋았다. 기관지를 벗어나 대내외적인 단결을 고취 시키고, 압력 행사를 해 연합회 및 기술인들의 위상·권익향상을 시키자. 콘텐츠를 다양하게 변화를 줘야한다. 특집 및 취재글이 부족하다. 질의자와 답변자의 성명이 꼭 표기를 해줘야 한다. 코멘트가 들어가면 좋겠다. 환경기술인들의 회보가 되어야 하며 기술인들의 기고가 들어가는 면을 할애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회원들이 읽고 싶은 회보, 읽기 쉬운 회보, 꼭 필요한 회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편집회의를 거쳐서 월간지 최종 마무리 해서 발행하자. 특히 교정을 잘 봐야한다.



▶ **김동민 고문** : 네트워크 시대인 만큼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 회관건립 건물을 지금 사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적절한 시기에 건물값이 다운될 때 부동산 취득을 해야한다. 연합회와 비슷한 단체를 섭외해 건물을 사도 좋은 방법이다. 월간지의 내용에 현장 실무적인 중심의 원고들이 더 첨가되어야 한다.

▶ **김동윤 고문** : 회원들과의 이해

관계를 유도, 유지를 잘 해야 한다. 대기업과의 연계하여 상호협조관계를 맺어야 한다. 타단체와 협조하여 회관건립 자금 조성에 노력해야한다. 전문교육기관 설립을 빠른 시일안에 추진해야 한다. 환경기술경력인증시스템 구축에 힘쓰자. 적절한 단체나 학회와 공동 조직체를 결성하여 보다 큰 연합회로 나갈 수 있다. 특히 대학교수 집단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 **윤명조 고문** : 회관건립 소위원회 구성하여 추진해보자. 전셋집을 끼고 건물을 사서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향은 어떤가? 공해방지시설 관리인을 없애는 정부에게 항의를 해야한다. 환경계의 국회의원을 동석시켜서 얘기를 해야한다. 년초에 고문과 국회의원과의 신년 하례회를 개최하여 무언의 압력을 주도록 해야한다. 정치적으로도 연계를 할 필요가 있다.

['최신 생물학적 처리 기술 및 신 운영관리기법' 교육 실시]

연합회에서는 한국산업기술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7월 5일에서 7일 3일간 한국산업기술협회 연수원(구로동 소재)에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신 생물학적 처리 기술 및 신 운영관리기법'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유수현 박사가 환경감시업무 해설 및 현장실무를, 드림바이

오스 광무영 박사가 활성슬러지공법의 하폐수처리장 신판리기법을, 신한기술단 환경·상하수도부 전경 기술사가 생물학적 폐수처리 원리 및 메카니즘을, 이호환경건설링 이문호 대표가 사상체에 의한 거품, 스크과 그 제어대책을, 동일환경기술 오제식 기술사가 활성슬러지 미생물 현장사례 및 개선방안을, 청림환경기

술연구소 이성호 대표이사가 최신 생물학적 처리 운영 관리 기법 현장 사례 발표를, 삼양사 중앙연구소 환경파트 임성린 책임연구원이 활성슬러지 공업의 원리 및 실무적용 등을 강의하였다. 다음교육은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최신 질소·인 처리 기술 및 운영관리(사례 중심)' 교육을 할 예정이다. ◀

[연합회장 동정]

[이상호 회장, 홍준표 국회환경노동위원장과 환담]



연합회 이상호 회장과 김병오 국장은 지난 13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홍준표 위원장과 환담을 가졌다.

이날 이 회장은 홍 위원장에게 연합회 활동사항과 월간지 성격 등을 설명하고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 심

도있게 피력했다.

이에 홍 위원장은 앞으로 연합회의 애로사항 특히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화답했다. ◀



[협의회 소식]

[경북동부협의회 - 대청소 실시]

경북동부협의회(회장 박주영) 주관으로 지난 6월 27일 협의회원과 관련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청소를 실시하였다.

본 협의회가 지난해부터 주관되어 추진하고 있는 웰빙(Well-Being)공단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산업발전의 중심인 포항철강관리공단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활동으로 매 분기 1회이상 공단입주업체들 자율적으로 일정기간을 정해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4월 5일 식목일에 공단주변도로에 식목행사를 벌인 것을 포함하여 철강공단내 비점오염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대규모 나무심기를 비롯한 담쟁이넝쿨 식재 등 나무사랑의 날 운영, 진공청소차량 구입 및 운영 등을 통한

청소의 날 운영, 흙먼지 발생예방을 위해 내대지 잔디심기 및 포장운동 등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동안 포항시청 등 관련공무원과 철강공단관리공단, 입주업체들과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가지고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앞으로는 본 협의회원은 물론 공단내 모든 사업장의 근무자들 스스로가 공단이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종사자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삶의 공간으로 할 계획이다.

[광주전남협의회 - '환경·안전 실천' 세미나 개최]

광주·전남협의회(회장: 김왕근, 방극진)는 지난 6월 27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금호타운 부녀회원을 대상으로 생활속의 환경·안전실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강사로 나선 김왕근 회장은 우리나라 주부들의 합성세제 사용량이 적정량보다 5~20배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가정에서 무심코



버린 오수가 심각한 환경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부녀회원들이 앉아서 환

경·안전 실천에 모범이 되어 달라고 했다.

이번 세미나는 광주·전남협의회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하남금호아파트 부녀회와 공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각 아파트를 순회하며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주부들의 환경·안전의식계몽운동을 할 것이다. ◀